

‘월클’ 히살리송 등 대어 대거 영입...그럼 손흥민은?

‘쿨러온 돌’ 주의보? 토틀넘은 손 안에...

〈손흥민〉

콘테 감독, 베스트11에 손흥민 포함 히살리송은 ‘KS콤비’ 백업으로 분류 새 시즌도 토틀넘 간판스타로 우뚝 강해진 멤버와 경쟁보다 공존 중요



히살리송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르며 주가를 드높인 ‘손 세이셔널’ 손흥민(30)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윙 포워드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설 수 있는 브라질 국가대표 히살리송이 그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현지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마냥 걱정할 일은 아닌 듯 하다. 이전과 지금, 앞으로도 손흥민은 토틀넘의 핵심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영국 토크스 포츠는 20일, 콘테 감독이 향후 가용할 2가지 라인업을 예상하면서 손흥민을 베스트11에 포함시켰다. 그가 대안 콰르텟 스키와 좌우 윙 포워드로 나서고, 전방에 해리 케인이 포진하는 형태다. 손흥민은 23골, 케인은 17골을 터트리며 토틀넘의 시즌 막바지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히살리송은 기존 멤버 루카스 모우라와 2번째 스쿼드로 분류됐다. 지난 시즌까지 머문 에버턴에서처럼 최대한 많은 출전시간을 얻을 수 있으나 콘테 감독은 일단 손흥민·케인의 백업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래도 경쟁보다 공존이 우선이다. 손흥민은 전방과 새도 스트라이커는 물론, 좌우 측면과 공격 2선 중앙까지 전 지역을 커버한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 포지션을 옮길 수 있다. 더욱이 토틀넘은 EPL·UCL에 리그 컵과 FA컵에도 도전한다. 제 아무리 철인이라도 풀 경기 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1월 개막할 2022카타르월드컵을 위해서라도 ‘캡틴’ 손흥민은 부상 약재와 컨디션 난조를 피해야 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토틀넘 홉스퍼(잉글랜드)는 2022~2023시즌을 단단히 버리고 있다.

지난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며 4위로 마감, 고대하던 ‘별들의 무대’ 유럽축구연맹(UЕFA) 챔피언스리그(UCL)에 복귀한 토틀넘은 최소한 1개 이상 타이틀 획득을 목표로 했다.

새 시즌을 대비한 프리시즌을 코리야 투어로 활짝 열어젖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탈리아)은 방한 기자회견 당시 우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팀의 야망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긍정의 분위기를 드러냈다.

역시나 토틀넘의 여름 행보는 평소와 다르다. 여느 때보다 활발한 여름이적시장을 보내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반 페리시치(크로아티아), 이브 비수마(코트디부아르·이상 미드필더), 프레이저 포스터(잉글랜드·골키퍼), 히살리송(브라질·공격수), 클레망 랑글레(프랑스·수비수)를 데려왔다.

19일(한국시간)에는 6번째 영입도 공식 발표됐다. 오른쪽에 특화된 측면 자원인 제드 스펜스(잉글랜드)를 합류시켰다. 이로써 토틀넘은 완전한 더블 스쿼드를 구축했다. 콘테 감독의 ‘야망’이 단단한 전력을 통해 확인됐다.

일각에선 큰 변화를 보인 토틀넘에서 그간 핵심 역할을 해온 주축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시즌

▶ 토틀넘은 새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전력을 보강했다. 기존 핵심 자원들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 전망도 있지만 아시아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의 입지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듯 하다. 13일 K리그 올스타를 상대로 득점에 성공한 뒤 세리머니 하는 손흥민.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영화의 가치는 단지 흥행에만 있지 않다”



한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이 반복관람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제공 | CJ ENM

극장선 간의 이름값 못했지만 ‘부활할 결심’한 ‘헤어질 결심’

평점·재관람율 높았지만 130만명대 흥행 그쳐
촬영지 순례·각본집 불터 등 후폭풍 더 거세

탕웨이·박해일 주연 영화 ‘헤어질 결심’이 재관람을 포함한 반복관람 열기 속에 두터운 팬덤을 구축해가고 있다. 6월 29일 개봉해 19일 현재 전국 누적 132만 관객을 불러 모아 다소 아쉬운 흥행 분위기 속에 여름시즌 극장가 장악을 노리는 블록버스터물들의 물랑 공세에 맞닥뜨렸지만, 작품적 완성도에 높은 점수를 주는 팬심은 흔들리지 않는 형국이다.

●보고 또 보고...‘메소드 관객’까지

20일 CJ CGV의 데이터전략팀에 따르면 ‘헤어질 결심’은 4.7%의 재관람률을 기록하고 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탑건: 매버릭’(6.1%)에 이어 올해 개봉작 중 2위이다. 재관람은 물론 반복관람을 뜻하는 ‘N차 관람’ 열기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선 15번이나 영화를 관람한 누리꾼의 티켓 인증샷이 화제를 모았다. 최근 극장을 찾은 탕웨이는 13차례나 영화를 본 관객과 뜨겁게 포옹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메소드 관객’이라는 유행어도 등장했다. 영화 촬영지를 찾아가 인증샷을 찍고, 영화 속 인물들처럼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SNS에는 전남 순천 송광사, 강원 속초의 영랑호 밤바위, 충남 태안의 마검포 해수욕장 등 영화 촬영지 인증샷이 넘쳐난다. 극중 박해일과 탕웨이와 초밥 먹는 장면이 등장한 부산 해운대의 한 음식점도 명소로 떠올랐다. 두 캐릭터처럼 일부 관객은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실제로 초밥을 먹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초밥에 위스키, 각본집도 베스트셀러로

이 같은 열기는 영화와 관련한 일부 상품의 판매고도 높여놓았다. 극중 주요 소품으로 등장한 싱글몰트 위스키인 ‘카발란 솔리스트 울로로소 셰리’의 경우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7% 이상 늘어났다. 국내 위스키 시장이 커진 영향이기도 하지만 카발란 수입사 골든블루는 ‘헤어질 결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연출자 박찬욱 감독이 즐겨 마시는 위스키라는 사실이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 예약판매를 시작한 ‘헤어질 결심’의 각본집도 이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8월 5일 출간되는 각본집은 18일 예약판매를 시작하자마자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 대형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예스24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6000부 이상이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이슬미 기자 smlee@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증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이 없애고 편한 속에도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